

'무한도전-토토가3' 시간여행, H.O.T도 팬들도 울었다



H.O.T.도 울고 팬들도 울었다. MBC 예능 '무한도전-토토가3' 특집에서 마련된 H.O.T.의 무대는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러졌다. 2018년에 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1996년으로 돌아간 무대. H.O.T.도 팬들도 그

함성과 함께 흘린 눈물 17년 시간 녹여버려 진정한 H.O.T. 완전체는 팬들과 함께 완성

17년 간의 공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다. H.O.T.의 판과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과 그 무대를 보며 함성과 함께 흘리는 팬들의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길게만 느껴지던 17년의 긴 시간을 한 순간에 녹여버렸다. 무대는 환상적이었다. 첫 무대로 꾸며진 '전사의 후예'는 지금 들어도 하나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노래와 무대와 춤이 과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연되었다. 이제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은 몸이라는 게 연습과정에서 갖가지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무대에 올라선 그들에게 그런 한계 따위는 없어 보였다. 그건 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결혼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마침 설 전날이라 집을 부치다 왔다는 팬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팬도 과거 그 때의 소녀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교복을 챙겨

입고 나온 한 팬은 그 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H.O.T.에 대한 애정을 담아 연실 하얀 풍선을 흔들며 무대에 열광적인 호응을 보여주었다. 가상으로 타임머신 설정을 한 것뿐이지만 어느새 공연장은 진짜 시간이 되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울컥한 건 '무한도전' 멤버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토니와 남다른 친분을 가진 양세형은 H.O.T.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울컥하는 마음에 말문을 잊지 못했다. 그는 토니가 얼마나 H.O.T. 완전체가 다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느낄 박한 감정을 그 누구보다 깊게 느낄 수 있었다. H.O.T.는 '캔디', '행복', '빛', 'We Are The Future', '이야이'의 무대를 선보였고 마지막 으로 특별히 객석 가까이 마련된 무대에서 '우리들의 맹세'와 '너와 나'를 불

렀다. 그 마지막 노래는 사실상 H.O.T.와 팬들이 나누는 대화이자 맹세이자 약속의 시간처럼 보였다. 힘겨워도 항상 서로가 있어서 의지하며 지금껏 버텼고, 결국 17년만이지만 그 세월이 무색하게 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무려 17만 명이 콘서트에 함께 하길 원했지만 한정된 객석 때문에 표를 얻지 못한 팬들도 공연장 바깥에서 끝까지 H.O.T.를 응원했다. 공연장 안에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비워둔 객석까지 밖에 있는 팬들을 위해 내어주었고, 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가워했다. 그들은 공연장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모두 하나였다. 처음 '무한도전-토토가3' 특집에서 H.O.T. 멤버들은 MBC 여의도 공개홀에 하나하나 모여 드디어 한 자리에 서는 완전체가 되었던 순간의 감동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콘서트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이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 원동력이 바로 여전히 변함없는 팬들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진정한 H.O.T.의 완전체는 팬들까지 함께 해서 완성되었다.

'화유기' 우마왕 아이 누굴까...송중호 정제원 오연서?



화유기 '우마왕' 잃어버린 아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차승원은 24일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화유기' (극본 홍정은 흥미란, 연출 박종훈) 17회에서 나찰녀(김지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며 금금증을 높였다. 화유기 차승원 잃어버린 아이 누굴까...송중호 정제원 오연서? 우마왕(차승원)은 이날 아사녀(이세영)에게 속을 뻐했다. 아사녀가 마왕의 기를 불어넣은 가짜 아들 악귀를 만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우마왕을 혼란에 빠뜨린 것. 자신이 인간들을 죽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우마왕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나섰다. 악귀를 찾아낸 우마왕은 그가 좋기는 기운이 자신과 같기에 당황했다. 간절히 아이를 찾고 싶어 하는 우마왕은 혹시 이 악귀가 자기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으나, 손오공(이승기)은 "정신 차려. 저판 게 마왕 아들일 리가 없잖아"라며 단칼에 없애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 우마왕은 수보리 조사(성지우)를 찾아가 "더 이상 속을 말할 수 없어. 사실을 말해.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당신이 신선이든 뭐든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힘을 사용했고, 이를 막아선 마비서(이엘)는 쓰러지고 말았다. 수보리 조사는 마비서가 죽은 줄 알고 어찌할 줄 몰라 했고, 우마왕은 오열했다. 우마왕은 다시 또 힘을 쓰려고 했으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 수보리 조사는 "아들은 살아 있어"라고 털어놨다. 이에 우마왕은 "마비서야, 일어나라"라며 쏟아낸 눈물을 닦아냈고 마비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시침자들을 웃기기도 했다. 우마왕은 자기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았으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수보리 조사는 "살아있긴 하지만 알려고 하지 마요. 큰 죄를 통해 살아난 아이입니다.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라며 "마왕이 찾고, 그 녀석 존재가 드러나면 천계 모두의 표적이 됩니다.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싶어 하는 우마왕은 혹시 이 악귀가 자기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

'블랙 팬서' 11일째 박스오피스 정상 질주...424만 돌파



영화 '블랙 팬서'가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달리고 있다. 25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24일 박스오피스 1위는 30만7340명을 동원한 영화 '블랙 팬서' (감독 라이언 쿨러)가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424만342명이다. '블랙 팬서'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어벤저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채드wick 보스만)가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2018년 마블 스튜디오의 첫 아시아작으로, 아프리카 왕국의 화려한 비주얼과 역동적인 액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2위는 '월요일이 사라졌다' (감독 토미 워르콜라)가 차지했다. 1만 1248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16만4868명이 됐다. 1가구 1

자녀만이 허락된 엄격한 인구 통제 사회에서 한 명으로 위장한 채 살아온 일곱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배우 누미 파라사가 1인 7역 쌍둥이를 연기한다. '골든 슬림머' (감독 노동석)는 6만5504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 이로써 누치 관객수는 127만700명이다. 해당 영화는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평범한 택배 기사 건우(강동원)의 도주극을 그린 작품이다. 4위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감독 김석)은 6만1768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는 233만3840명이 됐다. 괴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명탐정 김민(김명민)과 서벌(오달수), 기력을 잃은 괴력의 여인이 힘을 합쳐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 영화다. 5위는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로 이날 5만5692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11만3331명이다. 해당 작품은 목소리를 잃은 청소부 엘리자(샬리 호킨스)와 비밀 실험실에 갇힌 괴생명체와의 만남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다. 6위는 '50가지 그림자: 해방' (감독 제임스 홀리)다. 3만369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수는 9만2527명이 됐다.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남자 크리스찬 그레이(제이미 도넛)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그를 사로잡은 아나 스타사(다코타 존슨)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역전되면서 맞이하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패딩턴2' (감독 폴 킹)은 한 계단 상승해 7위에 안착했다. 이날 1만 2540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으며, 이에 누적 관객수는 27만5471명이 됐다. '패딩턴2'는 런던 생활 3년 차, 자칭 알바 마스터가 된 패딩턴이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8위는 두 계단 상승한 '명탐정 코난: 감벽의 관' (감독 아야모토 야스이치로)이다. 여름 휴양지에서 발생한 생명의 살인 사건과 300년 전 전설 속 해적들이 남긴 보물을 노리는 보물 사냥꾼의 음모에 맞선 코난의 추리를 담은 영화로, 이날 1만 1812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21만4284명이다. '코코' (감독 리 언크리치)는 9위를 기록했다. 1만823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으며, 누적 관객수는 347만7368명이다. '누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화려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온 디즈니 픽사의 작품이다. 10위는 세 계단 하락한 '홍부' (감독 조근현)다. 9771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수는 39만6761명이다. 천재 작가 홍부(정우)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 조혁(김주후)과 조항리(정진영)에게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엎을 소설 '홍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1월 11일)

<p>▶ 쥐띠 의욕이 넘쳐 모든 것이 왕성하나 정념 속시원히 끝나는 일은 없을 듯. 1, 9, 10월생 애정에 불이 활활 타니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다. 가, 오, 표 성씨 남성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서류, 문서 등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과음은 절대로 안 된다.</p> <p>▶ 돼지띠 움직임이 순조롭다 해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 가, 나, 오 성씨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이다. 한층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한다. 3, 6, 11, 12월생 중 트, 흥 성씨 학자, 강사 등은 불륜을 조심하라. 마음으로 내쳐야 할 때다.</p> <p>▶ 호랑이띠 3, 5, 7월생 건강이 좋지 않으니 사업도, 가정도 힘들다. 잠시라도 휴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 바, 사, 오 성씨 즉흥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 정확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듯. 집에서 볼 때 동쪽이면 좋겠다.</p> <p>▶ 토끼띠 직장 일을 소홀히 하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최선을 다하라. 5, 8, 11월생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는 격이다. 메모지를 준비할 것. 가족, 친지 등과 의견 대립 있겠다.</p>	<p>▶ 용띠 1, 3, 7월생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딴 것처럼 자동차를 몰고 싶기도 하다. 가급적 검은색은 피해야 한다. 파란색이 좋을 듯. 사업, 가정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뱀, 뱀, 돼지띠가 도움을 줄 듯.</p> <p>▶ 닭띠 실력을 과신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기 마련이다. 8, 9, 11월생 의존심을 버려라. 자신의 일은 자신이 믿고 남이 자신의 미래를 키우는 길이다. 미혼자 가, 바, 오 성씨 등, 서쪽에서 새로운 애정이 싹트겠다.</p> <p>▶ 말띠 사업을 하려면 편물도 흘려야 하는 법. 중간 포기하는 배격하라. 가, 사, 흥 성씨 당신은 리더십이 강해 사업을 변동하기에 알맞은 시기다. 6, 8, 9월생 동업하려면 절친한 친구와 하면 안 된다.</p> <p>▶ 양띠 고만에 빠져 사업도 망치는 격. 1, 2, 6월생 자기 과신은 적당히 하라. 미래를 위한 길. 늦게 시작한 사업이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새로운 후계자를 키워야 할 때. 사, 오, 자 성씨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라.</p>	<p>▶ 원숭이띠 다, 바, 툇 성씨 사과가 달콤한 맛이 있으면 꿀은 새콤한 맛도 있는 법. 당신에게 알맞은 곳에서 안정을 찾으라. 3, 7, 9, 12월생 짧고 굵게 모든 일에 대처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 좋을 듯.</p> <p>▶ 양띠 나, 오, 흥 성씨 작은 회사에도 장점이 있는 법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많은 인심을 충실히 해야 할 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을 듯. 1, 4, 6월생 남향에서 금전적으로 도움 줄 자 나타날 수. 검은색은 불길.</p> <p>▶ 개띠 1, 8, 9월생 자녀 탈선 위기가 있다. 내 자식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다, 바, 오 성씨 항상 열쇠를 앞에 끼고 다니는 것이 손재수를 막는 길.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미루는 것과 같다. 잘 사라는 농아주라.</p> <p>▶ 돼지띠 2, 7, 11월생 변동 수 있으니 이사하거나 이직할 듯하다. 그러나 이사는 시기상조다. 나, 바, 오, 흥 성씨 등, 서쪽에서 액운이 뻗치니 곧은 마음으로 대처하라. 남편 관계로 구설에 오를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듯.</p>
-------------------------------------------------------------------------------------------------------------------------------------------------------------------------------------------------------------------------------------------------------------------------------------------------------------------------------------------------------------------------------------------------------------------------------------------------------------------------------------------------------------------------------------------------------------------------------------------------------------------------------	------------------------------------------------------------------------------------------------------------------------------------------------------------------------------------------------------------------------------------------------------------------------------------------------------------------------------------------------------------------------------------------------------------------------------------------------------------------------------------------------------------------------------------------------------------------------------------------------------------	--------------------------------------------------------------------------------------------------------------------------------------------------------------------------------------------------------------------------------------------------------------------------------------------------------------------------------------------------------------------------------------------------------------------------------------------------------------------------------------------------------------------------------------------------------------------------------------------------------------------------------------